

# “종교가 국가주의 도구가 되선 안된다”

## 동국대-日도요대와 ‘20세기 이후 한일 불교의 변천’ 세미나서

“불교학계는 근대 한일불교사를 고찰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성찰의 자세가 있어야 미래의 지구사회를 열어 나가는 새로운 불교를 구축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경제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대표 불교대학인 동국대와 동양대가 근대 양국 불교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미래 공동의 발전을 다짐해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정승석)은 11월 6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일본 동양대와 함께 ‘20세기 이후 한일 불교의 변천’을 주제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근대불교를 있게 한 엔료 스님의 국가주의에 대한 일본학자들의 비판과, 한일불교교류로 한국불교가 발전했다는 한국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다케무라 마키오 동양대 총장은 “2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는 미묘한 문제가 많다”며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냉정히 관찰해 미래를 향한 풍요로운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대학장도 “향후 2년에 걸쳐 양대학은 1년에 1회씩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골자로 협정을 맺은 이후 공동연구까지

진행하게 됐다”며 “불교학계의 교류가 양국 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불교 근대화 이면에 전쟁 긍정” 반성 이어진 세미나서 다케무라 마키오 총장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불교 개혁에 앞장선 엔료 스님의 활동을 조명하며, 국가주의 경향을 비판했다.

### 양국불교 변천 공동연구 일한

### 日근대불교 효시 엔료 스님 비판

### “반성할 것은 해야 발전 가능”

타케무라 총장은 “에도 시대 일본불교는 포교에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막부말기에는 폐불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메이지 시대 기독교가 전도되는 상황에서 엔료 스님은 서책을 통해 기독교를 사상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승려교육에 나섰다. 또 일본 불교종파간 연합을 통해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쳐 근대 일본불교를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타케무라 총장은 “하지만 엔료 스님의 반기독교와 호국사상 이면에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있었다”며 “현실 사회의 개혁에



다케무라 마키오 동양대 총장



이날 세미나는 동양대 설립자인 엔료 스님에 대한 재조명과 근대 한일 불교교류의 과정과 영향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여한 그 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엔료 스님은 온누리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명원하는 대신에 일본의 부국강병을 염원하며 전쟁을 긍정하기도 했다”며 “계몽을 골자로 한 근대주의에 대한 확신 속에 내포된 국가주의나 세속주의는 극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우라 세쓰오 교수는 “엔료 스님이 조선에서 순회강연을 한 일지를 보면 ‘오늘날 조선의 도로와 설비, 학교교육은 다 조선학병의 덕택’, ‘조선인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등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본을 찬미한 논리를 전개할 뿐”이라며 “현대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조선시대 유자들에게 억압됐던 불자들은 민족의 독립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일본유학에 떠났다”며 “역설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유학을 통해 국제감각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귀국 후 정계와 교육계, 종교계 등에 몸담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들이 불교개혁에 동참했으며 불교교단에 능동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교단은 이들이 결혼과 환속, 전공변경 등의 문제를 우려해 관계 설정에 미온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정화의 터널을 거치지 못한 상처를 안게 됐다”며 “오늘날 우리가 한국불교의 대중화 방안을 모색할 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지혜를 동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비사상과 연관”

### 양동석 명예교수,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밝혀

기업의 영리활동과 사회적 책임활동은 함께 병행될 수 있을까. 그 접합점을 불교의 자비사상에서 모색한 논문이 눈길을 끈다.

양동석 조선대 명예교수는 11월 7일 한국불교학회가 개최한 추계학술 세미나에서 자비사상을 통한 기업윤리를 발표했다.

양 명예교수는 발표에서 “기업이 공동체 활동이나 사회공헌을 하는 이유는 정부나 사회로부터 큰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대기업의 영향력은 공익의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명예교수는 “갈빈의 금융직업 윤리는 서구 자본주의의 성장의 원동력이 됐지만 현대 자본주의는 계층갈등 등 다양한 문제 속에 종래의 금융직업 윤리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연기에 의해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윤리로 대체돼야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명예교수는 “단기적인 영리에 매몰된 탐욕에 의해 노사갈등, 빈부격차, 불공정 경쟁 등을 초래하고 있다”



양동석 명예교수

“불교의 연기론에 의한 자비사상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기업의 부패를 치유하고 인류를 풍요롭게 살게 할 수 있는 윤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비주의와 불교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사띠 수행력 측정과 향상을 위한 기기와 방법’ 논문에서 최근 개발한 ‘촉각자극분배기(觸覺刺激分配機)’를 통한 사띠 수행의 방안을 밝혔다. 촉각자극분배기는 휴대폰 진동기능 부품을 소형진동모터를 활용해 촉각 자극을 조절하는 기기다. 김 교수는 촉감은 “신체에서 동시에 발생하지만 결국 자신이 집중하는 촉감만 인지된다”며 “촉각을 인지하는 능력, 자신의 인지 능력을 촉각으로 향하게 해 시각과 청각에 매몰된 본연의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청담 스님 정화사상 조명, 갈길 멀다”

### 마가 스님, 청담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서 강조

“청담 스님의 정화 운동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비구중단을 구현하는 첫 번째 정화운동에 이어 승려정화, 신도정화의 두 번째 정화운동은 아직 우리 곁에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마가 스님은 청담사상연구소가 11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출범의 근본정신’을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마가 스님은 “청담 스님의 종단정화는 통일종단 형성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종단 형성 이전의 종단정화는 청정비구 중단을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통일종단 이후 청담 대종사는 승려정화와 신도정화에 매진했다”고 분석했다.

청담 스님(1902~1971)은 근현대 대표적 선사로서 평생 참선수행을 통한 불교교단의 정화운동과 중생교화를 위해 힘쓴 선주조역할을 했다. 스님은 1954년부터 19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하기까지 정화의 횃불을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노덕현 기자



마가 스님

마가 스님은 이어 “청담 스님이 종단정화를 위해 펼친 구체적인 불사는 ‘역경(譯經)사업, 포교사업, 도제(徒弟)양성’이라는 3대 사업으로 ‘종단정화, 승려정화, 신도정화’라는 3대 목표와 ‘역경(譯經)사업, 포교사업, 도제(徒弟)양성’이라는 3대 사업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을 맺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가 스님은 “청담 스님의 정화운동을 이어가는 것은 종단정화에서는 교구분권화, 교구자치, 승정정화에서는 법계행위척결, 신도정화에서는 청년 포교 등에 과제가 남아있다”며 “도제양성과 디지털 역경사업, 신개념 포교 방안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끝으로 “3대 사업이라는 숙원을 완성하기 위해 탈종이라는 결단도 서슴치 않았던 청담 대종사의 원력을 귀감삼아 미완의 3대 사업을 완성해가자”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 남해 용문사 대웅전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남해 용문사 대웅전(南海 龍門寺 大雄殿)’(오른쪽 사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중창(重創) 기록과 건축 양식에 따라 조선 현종 7년(1666)에 일향(一香) 스님에 의해 건립되고, 영조 47년(1773)에 중수(重修)됐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평면 구성과 공포의 표현기법, 상부 가구와 단집 등에서 수려한 장엄 수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18세기 이후 건립된 사찰 주불전의 특징적 건축양식이다.

특히 서남해안 지역의 건축 경향이 동

쪽 지역으로 확장되어 발전하는 양식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 남해안 해안 지역의 사찰건축 중 흔치 않은 귀중한 불교 문화유산으로서 평가받는다.

노덕현 기자

## 인도철학회, ‘인도철학 50년 회고와 전망’

### 50주년 기념세미나…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인도철학회(회장 정승석)는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인도철학 50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에서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이 기조발표를 진행하며 △정호영 충북대 교수의 ‘불연(不然) 이기영 선생에 대한 회상’ △문은식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원의

범 교수의 업적과 불교논리학’ △정승석 동국대 교수의 ‘배우며 생각하며 수행하며 전념한 후학 양성: 향운(香雲) 정태현 박사’ △황용식 명상연구자의 ‘서경수 교수의 업적과 현대 인도철학에 한 전망’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일본 인도철학의 성립과 하라탄잔의 역할’ 등이 발표된다. (02)2260-3133

노덕현 기자

## 한국선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회장선거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는 11월 14일 오후 1시 서울 장충동 우리는선우 대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한국선학회는 이날 오후 5시 제8대 회장선거를 실시하며, 후보로는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단독 입후보했다.

소 및 유형학의 특징-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談話) 공안을 중심으로’ 등이 발표된다.

이전 학술대회에서는 △정은 스님의 ‘금강경의 선사상’ △호정 스님의 ‘간화선에서의 의(疑)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철학적 이해’ △조영미 박사의 ‘공안의 구성요

노덕현 기자

## 울진 불영사, ‘불영사 역사·문화’ 학술대회

울진 불영사(주지 일운)는 11월 8일 오후 1시 울진엑스포공원 영산관에서 ‘불영사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영사의 건축’ △정명희 학예연구사의 ‘불영사의 회화’ △송은석 박사의 ‘불영사의 조각’ △최웅천 동국대 교수의 ‘불영사의 공예’ 등이 발표된다. (054)783-5004

학술대회에서는 △여서 스님의 ‘불영사의 역사와 성보’ △오세덕 학예연구사의

노덕현 기자

## 대각사상연구원, ‘용성스님 전법’ 재조명

양주 석굴암과 대각사상연구원은 10월 30일 동국대에서 ‘백용성스님 전법의 재발굴’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선사의 생애와 사상’ 주제발표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동헌, 월주, 동광스님 등 용성스님 가르침을 이은 제자들을 통해 용성스님의 사상을 재조명 했다.

용성 스님 제자, 동암 스님 탄신 110주년을 기해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의 ‘동암

노덕현 기자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국,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